

도서관 관계 전문직과 관계 학문의 재규정

김 중 한*

전문업이란 일반의 특수한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시작되고 또한 유지되는 것이며, 전문직은 전문업의 능숙한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직이 다루는 일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다기다양하여짐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견하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통제하려는 필요성에 의하여 학문이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자연 또는 사회현상을 다루는 과학부문 뿐만 아니라, 가치관, 윤리관, 심미관, 신앙 등을 다루는 인문관계 학문에도 적용된다. 이 소론에서는 전문직을 정의한 다음에 도서관과 도서관에 관한 학문을 정의하고자 한다.

전문직의 요소는 첫째, 사회가 그 중요성과 깊은 학문적 배경을 요하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가치에 합당한 보수를 주는 동시에 그 자격에 대하여 간여하고 검정하고 보장할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 사서직의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자격증을 주어 사회가 받을 봉사적 질적 보증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의사나 교사나 변호사 및 교수 등 국가가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전문적 행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가 그들의 사회봉사를 중요시하여 그들의 질적 보증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직의 둘째 요소는 그것이 전문지식과 학식을 갖추고 또한 능숙한 기술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다지 필요치 않은 직업

* 인메애나 州立大學 教授(圖書館學博士)

은 전문직이라기 보다 기공, 기술공, 일반직 행정원, 서기, 집사 등으로 따로 구분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고도의 학문과 지식이 이러한 직책에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 사서직의 경우 그 직책이 지식의 생산, 발전, 전파, 교육과정의 중매 등의 역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셋째 요소는 개인 고객에 대한 봉사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는 환자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고, 변호사 역시 이러한 책임이 명백하다.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전문 직책을 수행하는 대학 교수 학교 교사, 도서관 전문 사서, 정부기관의 전문가들 역시 봉사 대상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대학 교수나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문 사서는 봉사 대상 그룹에게, 전문가 관리들은 일반 국민에게 책임을 갖는다.

전문직의 넷째 요소는 다른 직업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문단체에 대한 관계가 소속 기관과의 관계와 거의 같은 정도로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직업단체의 세력은 물론 그 직업의 경제적 정치적 세력과 비례하는 것이며, 비영리적인 직업단체, 예를 들면 교육자들의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립적인 충성관계가 존재한다. 전문 사서직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병립관계는 마찬가지다.

전문직의 다섯째 요소는 직업단체와 분리된 학술단체에 그들이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전문직이나 일반 기술직이나 별차가 없게 된다. 학문은 직업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학자도—극소수의 귀족 학자를 제외하고—생활해야 하므로 직업을 초월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학문 없이는 학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학자들의 단체인 학술 단체의 존재가 한 중요한 요소로 되는 것이다. 문화 수준과 지식 수준이 높고 앞을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사회일수록 학술에 대한 사회가치가 크며 학술단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전문 사서직의 경우 한국에 있어서나 미국에 있어서나 전문 사서 자신들의 인식단계가 아직 학술과 직업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할만큼 되어 있지 않

다. 전문 사서들이 자신을 학자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학술단체가 있을 수 없다. 미국의 도서관 전문직들의 단체인 ALA가 주로 직업단체이면서 학술단체의 역할까지 맡아 보려는 것은 무리한 일이며, 실제로 ALA를 학술단체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에 도서관협회와 학회들이 있고 따로 학회가 있는 것은 미국 보다 오히려 앞선 생각이라고 하겠다.

도서관 사서직의 전문직으로서의 근거와 학문으로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사서의 직책을 소극적인 견해와 적극적인 견해로 양분하여 보겠다. 이를 보수적, 진취적 또는 구식, 신식으로 양분하여 다룰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느 한쪽이 좋고 또는 나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소극적인 사서직의 세 가지 직책은 (1) 지식, 역사적 문헌 및 기록의 보존, (2) 지식과 문헌 및 기록자료의 목록 작성, (3) 도서관 소장자료의 개방 이용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세 가지 직책은 어느 도서관 목적에서나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누누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나, 시대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그 뜻과 사회적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식과 문헌기록의 보존에 관한 직책을 국가적인 입장과 지방단체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본다. 국가적인 입장은 필자의 줄고 “한국 도서관 발전 계획”에서 정의한 국립도서관들의 기능의 일부를 말한다. 옛날에 국가의 기록을 담은 사고(史庫)를 네 곳에 중복 분산시켰던 것은 자주 있었던 전란의 피해에서 이를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귀중도서문헌의 보관은 국가에서 그 시설을 마련해 주고 현재 각 지방에 분산 방치되어 있는 귀한 고서적들이 일실되기 전에 잘 보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서적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현재라는 역사 형성과정에서 생기는 또는 이를 기록한 문헌 기록을 국가적으로 선택, 정리, 보존하는 것도 중

요하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방정부의 국립도서관 역할을 하는 의회도서관이 있고 국립사고(National Archives)가 있어 법으로 국가의 기록이 보존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주의 주립도서관은 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의 많은 큰 대학도서관들 역시 특수한 귀중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있다.

지방단체적인 입장으로는 지방 향토자료를 수집 보관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향토자료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문헌기록을 보존하는 책임은 각 단체의 도서관에 있다. 미국의 웬만한 지방 공공도서관에는 지방 역사자료실이 있어 그 지방의 모든 역사 문헌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있다. 미국의 짧은 역사를 생각할 때 각 지방 유지 또는 정착가문들의 족보기록이 충실히 수집되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문헌기록의 수집 보존 직책이 소극적이긴 하나 극히 중요한 직책임은 물론이며, 이 한가지 직책만으로도 전문적이 성립된다.

지식, 문헌 기록자료의 목록을 작성하는 직책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 일이 있는 자료를 수록하고 목록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자료의 목록(소위 도서관목록)이 도서관 건물 안에서만 들어지고 이용되는 것은 이러한 소극성 때문이다. 또한 목록 작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로서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준비작업이란 뜻에서 소극적인 직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직책이 전문직으로서 성립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두말할 것 없이 긍정적인 대답을 주어야 하나, 전문직 목록 사서의 직책은 기계적인 목록 작성 작업이 아니라 목록의 목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당한 목록을 계획 고안하고 이의 작성, 유지, 이용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기서 전문직과 일반 서기나 사무직이 구분된다.

서지 목록 작성의 책임이 한 지방 한 기관의 도서관에 국한될 수도 있고, 한 도나 주(州)로 확대될 수도 있고, 국립도서관의 국가서지 작

성 책임과 같이 전체 국가로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전문 목록 사서는 국가적 목록 작성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주나 도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주제에 관한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지방 한 기관에 대한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도서관을 개방하고 소장자료를 이용시키는 것이 왜 소극적이냐 하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오기를 막연히 기다린다는 데서 한 말이다. 도서관 서고가 개가식으로 일 반에 공개된 것이 과히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소극성을 수긍할 수 있겠다. 소극성과 적극성의 구별은 도서관의 자료 이용에 대한 뚜렷한 목적설정이 있고 없고에 달렸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전통적이고 또한 소극적인 직책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직책들이 소극적이란 까닭은 직책의 한계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영 조물의 구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식 자료 또한 한 도서관이 가진 것에 한정되어 있고, 만드는 목록 역시 한 도서관에 있는 자료에 만 국한되어 있다. 소장자료의 이용 역시 한 도서관의 책임 구역 내에 서만 이루어진다. 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지만, 도서관의 서서비스가 바다에 뜬 섬 모양으로 유리되고 고립하여 있을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리하여 적극적인 직책이 논의되게 되는 것이다.

적극적인 직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근래에 속한다. 특정한 사회봉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직책의 성격이 적극적 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해석된다. 즉 이러한 목적 설정이 뚜렷하고 자 세하게 세워짐에 따라 전문사서 직책이 적극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또한 적극적인 직책은 그 봉사 대상과 범위가 한 도서관 봉사 구 역 내에 한정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직책을 다음의 세 가지로 대분하여 논의해 보겠다. (1) 봉사 대상의 교 육이 중요 직책인 것, (2) 지식과 공표된 사실을 널리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시키는 것이 중요 직책인 것, (3)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

고 창조적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료를 수집, 준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직책인 것.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전체에서 책임지는 것이라고 본다. 학교교육이 다른 교육과 다른 것은 교육과정(敎育課程)이라 하는 뚜렷하고 자세한 목적 설정이 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이 조직적으로 수행되고 또한 그 효과를 측정하려 하는 데 있다. 도서관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일반에 의하여 인식된 기능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학교와 같이 교육의 조직적인 과정(過程)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학교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의 목적은 물론 학교나 대학의 교육 목적과 일치한다. 목적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전문 교육사서의 교육적 서서비스가 절대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도서관의 전문사서를 한갓 서고직이로 보고 일반 사무원의 직책으로 보던 시절은 벌써 지나가고 전문사서가 교사와 같이 학생 교육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고 전문교육담당 사서로서 교사의 한 사람이 되어 교육과정 목적 달성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되는 때가 왔다. 이는 초급대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전문 교육담당사서(이하 교육사서라 칭함)의 직책을 규정하기는 학교에서와는 달리 약간 복잡하다. 공공도서관에서 교육사서가 책임지는 교육은 물론 대학교육이나 학교교육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교육과정과 같은 뚜렷한 목적 설정과 이러한 교육목적 달성의 정도와 효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어느 도서관에서나 늘 하는 도서대출을 가지고 이를 성인교육 또는 사회교육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억지라고 해야 하겠다. 성인교육을 하겠으면 이에 대한 뚜렷하고 자세한 목적 설정이 있어야 하고, 가령 청소년의 정서교육이 목적이라면 이에 대한 자세한 목

적 설정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목적 설정 없이 목적 달성 효율 또는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공도서관의 교육담당사서의 직책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견해는 아니나, 조만간 그렇게 귀착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서당교육으로 족하던 세상은 옛날이고 이제는 대학원을 나와도 평생 공부를 계속해야만 급속히 발전해 가는 지식과 기술을 좇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학교교육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기초준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학교교육이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채우자는 것이 공공도서관이 말할 수 있는 또한 말아야 할 적극적인 교육직책이라 하겠다.

적극적인 전문사서의 직책의 또 하나는 지식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케 만드는 전문 주제사서의 직책이다. 이하 이를 주제사서(Reference-Information Librarian)라고 하겠다. 이 직책은 종래의 소극적인 지식자료의 무계획하고 무의미한 축적 또는 사장(死藏)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정된 봉사 대상의 지식과 인포메이션에 대한 실수요(實需要)를 파악하고 이러한 실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수요자를 찾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이 직책이 적극적이라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다루는 지식,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식과 사실이 믿을만한 전거 또는 권위에 의한 것임을 책임지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책임을 지듯이 사서가 다루는 지식자료의 내용, 출처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책임할 수가 없다. 학교 교사가 학생이 사용할 교재 내용에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은 그것이 항상 변하여, 상황이 달라지고 보는 사람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며, 또한 목적에 따라 지식의 뜻과 해석이 달라진다. 오늘에 쓸모 있던 지식도 내일에 가서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은 과학기술부문에 있어서 항상 보는 일이다. 지식의 노화현상 또는 퇴화현상은 생활체의

노화현상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현상은 주제부문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 전문 주제사서의 직책은 지식의 이러한 노화현상을 파악하고 종래 모든 지식자료를 그 연대를 막론하고 동일 취급하던 버릇을 버리고 항상 새롭고 더 권위 있는 지식자료를 수집 장만하고 낡고 쓸모가 적어진 자료를 제거하는 일이다. 새롭다고 해서 전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대상의 실수요를 조사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함은 물론이다.

다른 종류의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주제사서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주제사서는 우선 봉사 대상을 규정하고 그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항상 관측하고 인포메이션 서어비스의 주제와 목적과 방법을 세우고 서어비스를 조직한다. 이와 같이 주제와 목적이 결정되면 최신의 가장 권위 있는 자료를 선정 마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이용을 적극 권장하게 된다. 지방 공공도서관이 인포메이션 센터가 되는 것은 그 지방 그 지역사회에 관한 자료가 그 도서관에서만 완비되어 있으므로 지방 향토자료의 센터가 된다는 뜻이며, 각 주 또는 도의 도서관은 주 또는 도에 관한 가장 완비된 자료 센터가 되는 것이고, 국가 국립도서관은 국가자료의 가장 완비된 센터가 된다는 뜻이며, 한 주제에 관하여서는 주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완비한 센터의 역할을 여러 국립도서관이 분담할 수도 있고 (필자의 도서관 발전계획 참조), 각 대학 또는 정부 소속 연구기관에서 분담할 수도 있다. 학교나 대학도서관에서는 교육목적에 따라, 대학원이나 연구소 및 특수도서관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주제사서의 직책의 성격과 구성이 약간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전문 주제사서는 그가 다루는 지식과 인포메이션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그의 주제 분야에 관한 학적 배경 또는 지식이 문제가 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전문 주제사서의 학식이 그가 다루는 주제의 봉사 대상과 맞먹어야 하겠다. 큰 대학의 대학원 또는 교수들을 상대로 하는

주제사서들의 학적 배경은 교수들과 맞먹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여러 곳의 큰 대학 도서관에는 행정전문사서와는 달리 주제전문사서로서의 학자사서가 여러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 인디애나 대학의 예를 들면, 세계 각 지역 문화권(Area Studies)의 연구소의 자료 수집 서서비스를 책임진 슬라브 자료 전문가, 중국 및 극동자료 전문가 등의 전문사서가 열명이나 배치되어 있다. 이들의 직위는 교수들과 같이 조교수에서 부 더 정교수에 이르기 까지 같은 명칭과 대우를 받고 있다.

적극적인 직책의 하나로 전문연구사서 (Research Librarian)라고 부를 수 있는 사서직이 있다. 이 직책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생산하는 데 직접 돕는 일이며 이의 대상은 주로 학자들, 학술 기술 연구가들이다. 이 직책이 맡은 일은 새로운 지식 기술을 탐구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와 인포메이션을 조사하고 찾아내어 연구 노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책이 요구되는 곳은 주로 대학 또는 정부 소속 연구소, 큰 기업체의 조사 연구소 같은 데로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임무는 특정한 과제의 연구에 직접 이바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들면 국내에 두 개의 과학기술 분야의 도서관이 있으니, 하나는 KORSTIC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도서관이다. 전자의 역할은 최신 과학기술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포 활용시키는 것이고, 후자의 역할은 특정한 공업 기술 연구 개발이라는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이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다. 전자는 전문 주제사서가 주로 할 일이고, 후자는 전문 연구사서의 할 일이다. 물론 후자에 있어서도 주제사서의 직책이 필요하다.

전문 연구사서 직책은 물론 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의 배경을 요구한다. 사서의 학적 배경이 깊이로나 넓이로 봉사 대상 연구원과 맞먹을 정도라야 할 것은 주제사서 직책과 마찬가지로다. 사서의 배경은 한 좁은 주제에 관한 학식 지식의 깊이보다 오히려 좀 폭넓은 배

경이 연구원들에게 도움이 크고 따라서 환영을 더 받는 것을 본다. 이는 사서와 연구원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호 보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전문직의 직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서관과 전문직과 도서관학이 한가지로 혼동되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특히 전문직을 도서관에서 분리하여 자세히 정의하였고, 다음에는 도서관학을 관에서 분리하여 토론해 보겠다. “學”과 “館”이 별개의 뜻을 가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도서관학이라는 학의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도서관학이라는 것이 한가지 따로 된 학문이 아니라 도서관 사업 또는 서어비스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여러가지 관계 학문들을 합쳐서 일컫는 것이라 해석함이 타당하겠나.

현대의 학문은 옛날의 귀족들 승려들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그러한 학문도 아니고, 근대에 학자계급에서 발생한 인텔렉츄얼 계급이나 엘리트 계급의 계급적 독점물도 아니며, 지성과 교육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현대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에 있어서는 학문이 누구에게나 필수물이 되었다. 이를 학문의 보편화라고도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여 세속화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 학문의 특징은 그것이 자연 현상을 다루는 것이든 사회현상 또는 심리현상을 다루는 것이든 그 현상이 복잡하고 인간과 사회복지에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 상식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가 없을 때,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과학적, 논리적, 실제적으로 기술(記述) 분류하고 설명하고 예견 예측하고, 사물 현상의 발생과 결과를 미리 방지 통제 조정하여 인간사회를 이롭게 하려는 일련의 노력이다.

종래의 학문은 진리(眞理)를 탐구하는 데 있었고 영구적인 진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고 학문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였으나, 진리 파악의 실현성이 점점 희박하여짐에 따라 진리란 사람

의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기게 되었고, 과학기술 사회의 발달에 따라 학문의 성격이 달라져, 이제는 사물현상의 영원하고 완전한 설명을 기다리지 말고 사물현상의 뜻있는 설명을 찾아 좀더 뜻있는 설명이 발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학문은 잠정적이고 가변적이며 또한 학문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극히 다양한 것이다.

도서관에 관련된 여러 학문을 분류하고 질서를 찾는 데 여러 방식이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분하여 논하여 본다. 하나는 교육사서직이 다루어야 할 모든 형태의 교육자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자료의 성질 기능을 관찰 정리하고, 이를 설명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선택과 생산을 연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의 첫 단계는 만화책을 포함한 수천 종의 아동도서가 매년 발간되고 또한 수많은 시청각자료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관찰 조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다. 즉 첫 단계는 실태를 조사하고 사실대로 기술하여 연구자료를 마련하는 일이다. 아동자료 선정 목록, 서평, 도서해설, 학교 도서관 자료편람 등 도서관을 위한 또한 도서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종류에 속한다. 대학도서관 자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도 역시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자료에 대한 연구의 다음 단계는 자료의 구조, 기능, 효과, 성격 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같은 주제의 아동도서에 있어서도 어떤 책은 다른 책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를 설명하려는 연구다. 어린이들의 책읽기에 대한 동기의 변동, 그들의 독서 취미 주제의 변동 등을 설명하려는 것도 이러한 연구 단계에 속한다. 그 다음 단계는 도서자료의 효과와 기능을 측정하고 교육목적에 따라 이를 선정하려는 연구다. 현재 하고 있는 도서 선택 평가는 어떠한 과학적으로 확립된 원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 단계의 연구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에 따라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연구는 미국에 있어서도 극히 초보의 시험적인 노력이 몇몇 개인에 의하여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서관 관계 학문의 다음 분야는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학문이다. 즉 지식과 인포메이션의 서지, 목록, 색인을 만들고 지식 인포메이션 자체 및 이를 담은 자료를 보관 검색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목록학, 서지학(Systematic Bibliography), 도큐멘테이션,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등이 있다.

종래의 이 방면의 학문은 진정한 의미의 학문이라기 보다 실제적 급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일정한 방법 방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그쳤으나 요지음에 와서는 컴퓨터의 발달로 종래의 서지목록을 기계화하려는 노력이 미국에서는 유행이다. 다시 말하면 서지 목록의 특정한 기능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전자 계산기 같은 기계를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종래의 기능을 기계화해 보자는 것이 유행병 같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백만분의 비용을 들여 어떠한 특수한 분야의 극히 빠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용할 고객을 기다렸으나,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채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많다. 미국의 다른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정리 편목하는 데 그 비용이 책값보다 더 큰 것이 보통이다. 많이 이용될 책과 몇 해에 한두번 이용될까 말까 한 책들을 동일 취급하여 목록 편성에 엄청난 인적 물적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특히 도큐멘테이션과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라 불리는 부면은 그 정의조차 모호하여 사람마다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경향은 이것을 학문으로 개척해 보자는 노력보다도 순전히 전자 계산기계의 응용기술로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다. 말하자면 사용 목적부터 따지지 않고 값진 연장 만들기에 열중하는 것과

같다. 사용목적에 따지는 데 있어 다음에 논할 학문 분야가 중요하게 된다.

세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학문 분야는 도서관직, 서어비스, 제도(制度) 및 공공기관으로서의 역사적, 문화사적, 정치적, 교육학적, 경제 경영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다. 역사적 문화사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 모양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뜻있는 사관(史觀)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이러한 사관이 도서관 사업의 앞날을 계획하고 꾸미는 데 큰 도움이 되게끔 하자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발전에 도서관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여 보자는 것이다. 정치적 연구라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건강 유지와 발전에 도서관 사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여 보자는 것이다. 교육학적 연구는 도서관 사업의 국가 사회의 교육적 효율 또는 교육제도적 효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경제 경영학적 연구 역시 도서관 사업이 국가 사회에 주는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고 각개 도서관이 단위 기관으로서의 가장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도서관의 서어비스 대상 그룹의 도서관 서어비스 이용 행태(行態 Behavior)를 연구하는 일이다. 이것은 전술한 적극적 전문사서 직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연구분야다. 현재 이러한 행태연구는 그것이 지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분야에 기술적(記述的)인 자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층 더 올라가서 과학적인 설명을 한 연구는 태부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수학적으로 장래를 예측하고 조정하려는 연구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작은 논문을 끝맺음에 있어서 부언할 것은 도서관의 장래가 전술한 적극적인 전문사서 직책의 발전에 달렸고, 이러한 발전은 이상 설명한 여러 분야의 학적 연구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있어서도 도서관 전문사서들이 종전과 같은 소극적인 직책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그들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 빼앗기고 말 전망이 짙다.

The Librarianship and the Related Area Studies

Choong-han Kim*

〈ABSTRACT〉

The writer tries to propose som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 and recommend those of librarianship. In this connection, the writer tries to define "negative" and "positive" functions of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The writer also aims at classifying various disciplines included in library science.

Library science has to do with such phases as educational aids, storage and retrieval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librarianship itself. The title "Librarian" carries with it the connotation of "professional" in the sense that professional tasks require a special knowledge and background, that librarians try to maintain quality service to client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produced, developed, and disseminated via librarians, and that librarians are responsible for continuing education. The fact that the present stage of librarianship is generally known to adhere to negative posture and randomness might permit other institutions to replace the library's role.

* Professor, Indiana State University.